

중국조선족

민간

음악집



ZHONG GUO CHAO XIAN ZU
MIN JIAN YIN YUE J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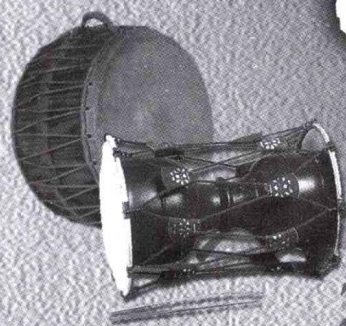
|| 김봉관 편저 ||

연변인민출판사

중국조선족

민간

음악집



ZHONG GUO CHAO XIAN ZU
MIN JIAN YIN YUE JI

【김봉관 편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최연숙 김학성 김인덕

책임교정: 김홍화

기술설계: 정선숙

촬영: 김광룡, 김 성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中国朝鲜族民间音乐集: 朝鲜文 / 金凤官编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12
ISBN 978-7-5449-0463-6

I. 中… II. 金… III. 朝鲜族-民歌-歌曲-中国-选集-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J642.211.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192035号

中国朝鲜族民间音乐集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16 印张: 93 字数: 1300千字

标准书号: ISBN978-7-5449-0463-6 (民文)

版次: 2008年12月第1版 2008年12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18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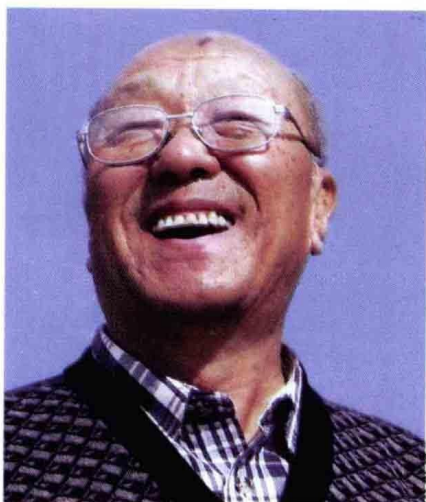
편집위원회 (고문)



동희철



안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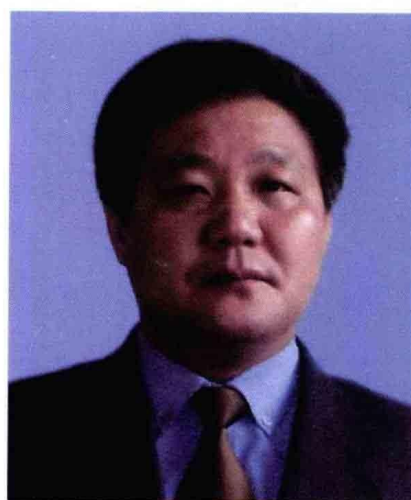
최삼명



박세성



박장수



허휘훈

편집위원회 (위원)



서영화



김덕균



김남호



림성진



안계린



강신자



전화자



황성렬



신 호



김성삼



류영근

책 머 리 에

남희철

며칠전 나는 김봉관선생님이 가져온 《중국조선족민간음악집》의 원고를 받게 되었다.

김봉관선생님은 내가 평소 어느 정도 알고있던터라 그가 만드는 책이라면 한번 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집에 와서 책장을 번지기 시작했다. 한장 또 한장... 어느새 밤은 지나고 새벽하늘이 희뵘히 밝아오고있었다.

책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야 하나? 아무렇게나 쉽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 만 김봉관 선생님과 같이 평생을 민요수집에 몸을 바쳐온분이, 그것도 갖은 고생을 다 겪으면서 오직 먼저 가신분들에게 한점의 위안이라도 드리고저 이 책을 만드는 것이라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것이다.

중국조선족의 민요집성사업은 지난 세기 50년대초로부터 시작되었다. 민요집성 사업기구의 명칭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연변지구민요수집위원회, 연변민간문예연구소조, 연변민가집성판공실, 연변예술집성판공실 등으로 수차 바뀌었지만 10년 동란 시기를 제외하고는 집성사업을 멈춘적은 없었다. 그동안 민간음악집성에 참여한분들의 이름을 거론해본다면 정길운, 리영규, 리황훈, 김태갑, 리동구 등 여러 사람들이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모두가 이미 고인이 되었고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평생을 바쳐 그들과 함께 일해온분은 오직 김봉관선생님 한분뿐이다.

책은 바로 이런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발로 뛰고 귀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 그런것들을 친히 채보하고 정리한 사람, 연구를 착실하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나는 김봉관선생님을 연구가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발로 뛰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사람이며 그런것들을 친히 채보하고 정리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책의 값어치에 대해 누군가 진, 선, 미로 귀납한적이 있다. 나는 이 표준이 가장 적절한 표준이라 생각한다. 진이란 내용의 진실됨을 이르는 말이요, 선이란 내용의 실용성을 이르는 말이며 미란 표현의 아름다움을 이르는 말이다.

《중국조선족민간음악집》은 바로 진, 선, 미가 어우러진 책이라 생각된다.

우선 이 책은 1050여수의 작품들을 수록하였는데 이런 작품들 모두가 우리 민족의 생활상을 반영하였고 우리 민족의 노동과 신앙과 사랑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여실하게 반영하였다. “가래질소리”, “벼 치는 소리”, “물 푸는 소리”, “호미소리”와 같은 작품들이 농경생활을 반영한 노래라면 “애기사랑가”, “수

심가”, “혼례식가”와 같은 작품들은 남녀사이나 부모자식간의 사랑을 표현한 노래들이고 “시집살이”, “한 오백년”과 같은 작품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노래들이며 “금강산타령”, “한강수타령”과 같은 작품들은 유유자적한 생활을 충분히 즐기면서 부르던 노래들이다. 특히 “자치주성립경축의 노래”, “처녀의 노래”, “떡메의 증오”와 같이 해방이후에 민요적인 수법에 따라 창작된 작품들은 새 중국이 걸어온 지난 세기의 발자취가 반영되어있어 소중함을 더해주고있다.

다음 이 방대한 작품들중에서 약 200수의 노래들이 김봉관선생님이 직접 수집한 것으로 이 책의 진실성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된다.

다음은 이 책의 선한 면이다. 이 책에 실린 많은 노래들은 노래를 부른 이들의 발음법을 존중하고 그들의 오점을 바로잡는데 큰 힘을 들였으며 그들이 일관되게 부른 내용들을 분명하게 기록하는데 기본을 두었다.

례를 들어 서도소리인 “배뱅이굿”을 수집할 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 노래의 한 대목에 “이리 취태 저리 취태”라는 노래말이 있는데 “취태”란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 다시 노래를 부른 조종주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았더니 그것이 바로 평안도사투리로 “디테” 즉 “지체”라는 뜻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민요 “탕세기”를 수집할 때에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 노래를 부른 리현규는 고향이 평안북도 녕변이라 “다섯, 여섯”하는 말을 “다섯, 야섯”이라고 하는데 이 대목을 “다섯, 여섯”으로 고쳐 부를수는 없는가고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아예 노래를 그만 부르더라는 것이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우리의 수집일군들은 수많은 노래들을 수집하는 과정에 먼저 술과 안주로 로인들을 달래놓고 그들이 부른 노래들을 록음한 다음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한자 한자씩 확인작업에 들어간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에 적지 않은 노래들에 주해가 달리게 되었을것이고 노래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오게 된것이라 생각된다. 다음 이러한 노래들을 “민요(로동요)”, “민요(서정세태요-가)”, “민요(서정세태요-노래)”, “민요(서정세태요-타령)”, “민요(서정세태요-기타)”, “민요(아리랑)”, “서사요(단가, 잡가, 장가)”, “풍속의식요”, “신민요 및 민요풍의 가요”, “구전용요”, “시조”, “판소리편단”, “창작판소리”, “항일가요”와 같이 비교적 적절하게 분류하여 편찬한것은 이 책의 선한 면이 아닐가싶다.

이처럼 《중국조선족민간음악집》은 진, 선이 겸비되어있고 게다가 출판의 아름다움까지 함께 어우러진데서 소중한 자료적가치와 민속적가치, 문화적가치와 역사적가치를 함께 지니고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작자: 연변대학 예술학원 교수, 음악평론가)

책을 펴내면서

김봉관

중국조선족들속에서 널리 류전되고있는 민간음악 1,500수를 묶어 《중국조선족 민간음악집》을 펴내게 되었다.

우리의 민간음악은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고 맥박이며 우리 민족의 의식과 정서적 감정이 여실히 반영된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선사시대로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민간음악은 구전력사가 길고 그 수가 헤아릴수없이 많으며 전파영역이 아주 넓은것이 특징이다. 력사가 증명하듯이 우리 민간음악은 선률적측면에서 우리 민족음악의 기초이고 원천이며 가사적측면에서 민족시가의 모체이며 시적형상과 언어의 보물고이기도 하다.

민간음악(성악부분)은 세세대대 불려지고 전해지는 과정에서 또다시 창조되고 가공되고 개조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건국후 정부에서는 많은 인력, 물력, 재력을 투입하여 민간문예의 수집, 정리 사업을 진행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임 당위서기이며 주장이었던 주덕해동지는 1950년대부터 로세대 민간예술인들의 별세로 유구한 우리 민족유산이 하나둘 사라져갈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을 끄러 달려가는 소방차의 속도로 민간예술에 대한 발굴, 수집, 정리, 연구 사업을 다그치라.”고 민간문예일군들에게 호소하시였다.

이런 력사적배경하에서 우리 주에서는 정길운, 김태갑, 박창묵, 김례삼 등 선각자들이 제일 먼저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1951년부터 중국의 동북3성에 널리 살고있는 조선족민간예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귀중한 우리 민족 문화유산을 발굴, 수집, 정리하는 사업을 기세드높게 전개하였다.

이외 연변가무단 등 우리 주 문예공연단체, 연변인민방송국 등 보도매체와 연변 예술학교에서도 우리 민족 문화유산을 발굴, 수집, 정리, 연구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1951년 1월, 연변가무단에서는 민간예술인들을 초청하여 배우들에게 전통예술을 전수시켰고 수차에 걸쳐 민간예술인들을 찾아다니는 한편 민요, 판소리 및 민간무용 수집, 정리,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1957년, 연변예술학교창립 초기에 학교측에서는 박정렬, 김문자, 리금덕, 신옥화 등 민간예술인들을 초청하여 교사로 부임시켰다. 1959년에는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야금전문가 지만수와 민족성악전문가 방옥란을 초청하여 1년간 조선

전통음악을 학생들에게 전수시켰다.

1961년에는 국가문화부와 중국음악가협회의 연합통지정신에 근거하여 “연변 민간문예연구조”를 설립하였는데 정길운, 리영규, 리황훈, 김덕균 등 여러 선생님들의 피타는 노력으로 허다한 민간예술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후세에 남기게 되었다. 이 시기 예술학교에서는 김진, 조순희, 정준갑 등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가야금 곡집》(유인본으로 내부자료, 1집—5집), 《조선민가집》(유인본으로 내부자료, 1집—5집)이 편찬되었으며 연변방송국에서는 민간예술인들의 육성자료를 많이 록음하여 보귀한 문화유산이 해빛을 보게 하였다. 허나 “문화대혁명”기간에 이 보귀한 예술자료들이 대부분 분실되거나 소각되었으며 수많은 민간예술 사업일군과 민간예술인들이 “잡귀신”으로 몰리워 참기 어려운 박해를 받았다.

1978년, 국가문화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중국음악가협회의 “2000년까지 중국의 예술집성을 완성할데 대한” 지시정신에 좇아 연변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예술집성관공실”을 창립하였다.

리황훈선생이 자기의 저택을 사무실로 내놓았다. 외지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리황훈선생네 집에 주숙을 정하고 일을 시작했다. 설비라야 새장구 하나, 무게가 20kg 넘는 “601”표록음기 1대, 카세트테이프 4개가 전부였다.

김창호(당시 자치주 문화국 부국장)를 단장으로 한 정길운(문학), 리황훈(음악), 김태갑(문학), 김봉관(음악), 리동구(촬영), 림성진(음악) 등 선생님들로 조직된 민간문예 수집, 정리 6인조는 조선족이 사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찾아나섰다.

로정이 먼곳은 기차나 버스를 리용하였으나 교통이 불편한 곳은 부득불 무거운 짐을 지고 험악한 산밭을 뚫으면서 10~50리의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마을에 도착하면 쉬지도 못하고 당지의 “로인협회”나 “독보조”를 찾아 그곳의 정황과 민간예술인들을 조사하고 저녁 6시가 되면 술과 안주를 차려놓고 민간예술인들을 초청하여 대접하였다. 술잔이 두어순배 돈 다음 마을 어른들에게 우리가 온 의도와 수집사업의 의의를 설명하고 우리 몇몇이 소리나 타령을 몇곡 부르면 민간예술인들도 흥에 겨워 저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민간음악을 들려주곤 하였다.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칠세라 “601”표록음기를 틀어놓고 매개인의 육성을 록음하였다. 흥겨운 놀이판은 4~5시간 지속될 때도 있었다. 록음이 끝나면 우리는 밤새워 록음기를 틀어놓고 악보를 기보하였다. 우리는 늘 새벽 5~6시에야 취침했는데 2~3시간 가량 눈을 좀 붙이고는 깨어나 새날의 일과를 시작했다. 아침을 대강 치른 다음 어제저녁 노래를 부른 민간예술인들을 찾아가 기보중의 의난점이나 화미한 부분을 보충, 수개하였다.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때면 때론 점심시간을 놓쳐 건량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비일비재였다. 련속하여 반복되는 이와 같은 일상은 우리들을 극도의 피로에로 몰아넣었다.

악보정리과정에서 섬세한 장식음과 다양하고 복잡한 목떨림, 농현 등을 그대로 적어야 하였는데 허다한 난관에 봉착하였다. 로예술인들의 년세로 하여 마땅히 높이가 올라가야 할 음들이 낮은 음으로 대체되거나 반드시 길게 뽑아야 할 지속음이 휴지부로 대체되는 등 그 정확도를 측정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카세트테이프가 4개뿐이라 반복사용할수 밖에 없는 정황에서 이미 록음하였던 음성을 아까운대로 버려야 하는 아쉬움도 남겼다.

지금까지 우리 연변에선 세차례 되는 민간예술 발굴, 수집, 정리,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50년대와 60년대에 있는 두차례의 민간예술발굴사업에서 우리의 문예일군들은 60여개 현시와 200여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5,000여명의 민간예술일군을 방문하였으며 세번째로 되는 발굴사업에서는 1978년부터 1986년까지 150여개 현, 시의 300여개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민간예술인들을 5,000여차 방문하였다. 우리 주의 민간문예사업일군들은 세차례의 수집, 정리 과정을 거쳐 도합 3,000여수의 민요, 판소리를 청취하고 1,000여수의 민요, 판소리를 수집, 정리하였다. 후에 김남호선생님께서 집성판공실의 일군들을 인솔하여 길림성 연변의 예술집성임무를 훌륭히 완수하였다.

민족의 얼을 되찾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서 자신의 일체를 다 바치신 정진옥, 리인희, 김성민, 정길운, 김진, 고자성, 리황훈, 정준갑, 왕보림, 리동구, 김태갑, 김승경, 김원창, 리행복, 권견 등 문예일군들과 보귀한 민간문화유산을 남겨주신 조중주, 우제강, 강성기, 조한룡, 박정렬, 리금덕, 리상철, 신철, 리병지, 차송녀, 김말순, 서명봉 등등 민간예술인들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이분들의 노력으로 하여 귀중한 민족음악유산이 발굴되고 보존될수 있었다. 이에 작고하신 여러 선생님들과 민간예술인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명복을 비는바이다.

한가지 부언할것은 이 책에서 편자는 민간음악(성악부분)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지 않고 민요, 단가 및 잡가, 아리랑, 신민요, 구전동요, 시조, 판소리편단, 서도판소리, 창작판소리, 항일가요 등 대체적으로 분류하였다.

“신민요 및 민요풍의 가요”부분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노래들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의 출판을 둘러싸고 물심량면으로 지지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연변조선족자치주 선전부 부부장이신 채영춘동지, 연변인민출판사 리성권사장,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 문화국 국장 심수옥동지, 한국 청북대학 립동철총장님과 국가1급작곡가 안계린선생님, 연변대학예술학원 황성렬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동지들과 선생님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바이다.

시간의 촉박과 수준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의 사심 없는 조언을 바란다.

일 러 두 기

이 책의 편집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미리 밝혀두며 널리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1. 원칙상 채보자의 표기상태를 존중한다.
2. 가창자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오기(誤記)가 있을수 있음을 밝혀둔다.
3. 채보자의 오기가 있을수 있음도 밝혀둔다.
4. 구두어, 지방방언 등은 그대로 표기한다.
5. 구전문요의 옛스러운 맛을 최대한 살린다.
6. 지방방언에 대해서는 원칙상 모두 주해를 달아야 하지만 여건의 한계로 일부분의 지방방언에만 주해를 달았음을 밝혀둔다.

차 례

민요 (로동요)

가래질소리 (1)	3	낫소리	26
가래질소리 (2)	3	남포질소리	27
가래질소리 (3)	4	노 젓는 소리 (1)	27
가래질소리 (4)	4	노 젓는 소리 (2)	28
가래질소리 (5)	5	다대기소리 (1)	29
가래질소리 (6)	5	다대기소리 (2)	30
가래질소리 (7)	5	다대기 먹이는 소리	30
고기잡이	6	다듬이소리	31
고기를 배에 퍼 실을 때 소리	7	달구소리	32
고사반소리	8	달고소리 (1)	32
고기 푸는 소리	10	달고소리 (2)	33
그물 당기는 소리 (1)	10	덜구 달는 소리	36
그물 당기는 소리 (2)	11	도리깨소리 (1)	37
그물 실을 때 소리	12	도리깨소리 (2)	37
그물 싣고 나갈 때 소리	12	보리타작	38
그물에 걸린 고기를 벗기는 소리	13	동발목도소리	39
김 매는 소리 (1)	13	드레소리	39
김 매는 소리 (2)	15	탕세기	40
논김 매는 소리 (1)	16	축풍	41
논김 매는 소리 (2)	17	투망할 때 소리	42
논김 매는 소리 (3)	18	떼소리	42
논김 매는 소리 (4)	18	말목치는 소리	43
논김 매는 소리 (5)	19	망질소리 (1)	44
논김 매는 소리 (6)	19	망질소리 (2)	45
논김 매는 소리 (7)	20	망에서 고기 풀 때 소리	45
논김 매는 소리 (8)	21	망치소리	46
논김 매는 소리 (9)	21	물레소리	47
논김 매는 소리 (10)	22	물 푸는 소리 (1)	47
жат은 논김 매는 소리	23	물 푸는 소리 (2)	48
밭김 매는 소리	24	물 푸는 소리 (3)	49
나무군소리	24	물 푸는 소리 (4)	50
나무 베는 소리	25	물 푸는 소리 (5)	50
나무 당기는 소리	26	물 푸는 소리 (6)	51



모내기소리 (1) -----	52	배에서 고기 풀 때 소리 -----	84
모내기소리 (2) -----	53	사공소리 -----	85
모내기소리 (3) -----	54	산운재소리 -----	88
모내기소리 (4) -----	54	삼 삼는 소리 (1) -----	89
모내기소리 (5) -----	55	삼 삼는 소리 (2) -----	90
жат 모내기소리 -----	56	산집재소리 -----	91
모 심는 소리 (1) -----	56	신세소리 -----	92
모 심는 소리 (2) -----	57	새 베는 소리 -----	92
모 심는 소리 (3) -----	58	새 쫓는 소리 -----	93
모 심기 소리 -----	59	쇠스랑소리 -----	93
모 찌는 소리 (1) -----	60	쇠 불리는 소리 -----	94
모 찌는 소리 (2) -----	61	장기 두는 소리 -----	95
모 찌는 소리 (3) -----	62	점심밥소리 -----	96
목도소리 (1) -----	63	절구질소리 (1) -----	96
목도소리 (2) -----	63	절구질소리 (2) -----	97
목도소리 (3) -----	64	줄 뽑는 소리 -----	98
목도소리 (4) -----	65	지정소리 -----	99
목도소리 (5) -----	66	지경소리 (1) -----	100
жат 목도소리 -----	67	지경소리 (2) -----	100
밭 엮는 소리 -----	67	지경 다지는 소리 -----	101
방아소리 -----	68	지게소리 -----	102
방아로구나 -----	68	집일소리 -----	103
보리방아 -----	69	즘치소리 -----	104
물레방아 -----	70	재목 들어옮기는 소리 -----	106
방아 찼는 소리 -----	71	우물 지날 때 소리 -----	106
떡방아소리 -----	71	옹혜야 (1) -----	107
밭갈이소리 (1) -----	72	옹혜야 (2) -----	108
밭갈이소리 (2) -----	73	옹혜야 (3) -----	109
밭갈이소리 (3) -----	74	옹혜야 (4) -----	110
밭갈이소리 (4) -----	76	일소리 -----	111
벼 베는 소리 (1) -----	76	손일소리 -----	111
벼 베는 소리 (2) -----	77	한정소리 -----	112
벼 묶는 소리 -----	77	호미소리 (1) -----	113
벼 치는 소리 (1) -----	78	호미소리 (2) -----	114
벼 치는 소리 (2) -----	78	호미소리 (3) -----	115
베 짜는 소리 -----	79	호미소리 (4) -----	116
배소리 (1) -----	80	혜악아 -----	117
배소리 (2) -----	83	활 쏘는 소리 -----	117
배 나갈 때 소리 -----	83	풍구질소리 (1) -----	117
배 떠날 때 부르는 소리 -----	84	풍구질소리 (2) -----	118
배 들어올 때 소리 -----	84	주해 -----	119



서정세계

감추가-----	127	사랑가 (2) -----	174
권학가-----	128	사랑가 (3) -----	175
경상도농부가-----	129	사랑가 (4) -----	177
함경도농부가 (1) -----	130	애기사랑가-----	179
함경도농부가 (2) -----	131	사시가-----	180
종성농부가-----	132	산천가-----	182
жат은 농부가 (1) -----	134	수심가 (1) -----	183
жат은 농부가 (2) -----	136	수심가 (2) -----	184
긴 농부가-----	137	수심가 (3) -----	185
농부가 (1) -----	141	수심가 (4) -----	187
농부가 (2) -----	144	청복수심가-----	188
농부가 (3) -----	145	수심가엮음 (1) -----	190
농부가 (4) -----	146	수심가엮음 (2) -----	192
농부가 (5) -----	146	엮음수심가 (1) -----	194
농부가 (6) -----	147	엮음수심가 (2) -----	196
농부가 (7) -----	148	자라가-----	198
농부가 (8) -----	149	지장가 (1) -----	198
농부가 (9) -----	151	자장가 (2) -----	199
동풍가 (1) -----	151	자장가 (3) -----	199
동풍가 (2) -----	152	자장가 (4) -----	200
동풍가 (3) -----	153	자장가 (5) -----	201
둥둥 내 사랑 -----	154	즉살가-----	202
라질가-----	155	직부가-----	203
리별가 (1) -----	156	청춘가 (1) -----	204
리별가 (2) -----	157	청춘가 (2) -----	205
리별가 (3) -----	158	청춘가 (3) -----	206
리별가 (4) -----	163	이팔청춘가 (1) -----	207
명승가-----	165	이팔청춘가 (2) -----	208
묘향산가 -----	166	이팔청춘가 (3) -----	209
반월가-----	167	신세이팔청춘가 -----	210
병정가-----	168	칭칭가 (1) -----	211
베틀가 (1) -----	169	칭칭가 (2) -----	212
베틀가 (2) -----	170	축혼가-----	213
베틀가 (3) -----	171	출항가-----	214
사발가 (1) -----	172	조선팔경가-----	216
사발가 (2) -----	173	양양팔경가-----	217
사랑가 (1) -----	174	아스랑가 -----	218

어부사시가-----	219	한양의 노래 -----	267
원앙가 (1) -----	220	원포귀범 -----	268
원앙가 (2) -----	221	가야금타령 -----	270
한탄가-----	222	각시타령 -----	271
후리창-----	223	경복궁타령 (1) -----	272
함양암장가-----	224	경복궁타령 (2) -----	275
해로가-----	225	구멍타령 -----	275
혼례식가 -----	226	고사리타령 -----	276
풍년가-----	227	골패타령 -----	277
고기잡이노래 -----	229	금강산타령 -----	279
김매기노래-----	230	금송아지타령 -----	280
개나리 -----	231	길군악 (1) -----	281
꽃노래-----	233	길군악 (2) -----	283
능수버들 -----	235	개구리타령 (1) -----	284
대동강실버들 -----	236	개구리타령 (2) -----	286
떼목군의 노래 -----	237	개타령 (1) -----	287
며느리의 노래 -----	238	개타령 (2) -----	288
모내기노래-----	239	통영개타령-----	289
바다로 가자 -----	240	까투리타령-----	290
베틀노래 (1) -----	241	꿈배타령 -----	291
베틀노래 (2) -----	242	꿈드렁타령 -----	291
베짜기노래-----	243	나무타령 -----	292
배노래 (1) -----	244	나물타령 -----	293
배노래 (2) -----	245	날개타령 -----	294
배노래 (3) -----	246	남포타령 -----	295
배노래 (4) -----	247	농사타령 -----	296
배 띄워라 (1) -----	249	느려라타령 -----	298
배 띄워라 (2) -----	250	느리개타령 -----	299
배 띄워라 (3) -----	252	니나니타령 -----	300
사공노래 -----	253	닐리리타령 (1) -----	301
새봄노래 -----	256	닐리리타령 (2) -----	303
새 연평의 노래 -----	257	닐리리타령 (3) -----	303
쌍둥이노래-----	258	단지타령 -----	304
주머니노래-----	259	담바구타령 (1) -----	305
진도녀성의 노래 -----	260	담바구타령 (2) -----	307
제주도배노래 -----	261	담바구타령 (3) -----	308
청진포배노래 -----	261	둥가타령 -----	309
어부의 노래 (1) -----	262	둥게타령 (1) -----	310
어부의 노래 (2) -----	264	둥게타령 (2) -----	311
연파만리 -----	265	둥게타령 (3) -----	312
요지경소리-----	266	둥개발타령 -----	312

둥둥게타령	313	방아타령 (8)	355
도라지타령 (1)	314	방아타령 (9)	357
도라지타령 (2)	316	방아타령 (10)	358
도라지타령 (3)	317	방아타령 (11)	363
도라지타령 (4)	318	방아타령 (12)	364
구도라지	319	жат은 방아타령 (1)	366
구식도라지	320	жат은 방아타령 (2)	368
도리깨타령	321	жат은 방아타령 (3)	368
돈타령	321	자진방아타령	369
동고나타령	323	물방아타령 (1)	372
동백꽃타령	324	물방아타령 (2)	373
등대타령 (1)	326	물방아타령 (3)	374
등대타령 (2)	327	물레방아 (1)	375
땅기타령	327	물레방아 (2)	376
등(불)타령	328	물레타령 (1)	377
대목타령	329	물레타령 (2)	378
대추타령	330	물레타령 (3)	379
령감타령 (1)	331	물레타령 (4)	382
령감타령 (2)	332	물레타령 (5)	383
령감로친	333	보리방아	385
말몰이군타령	333	사설방아타령 (1)	386
무당타령	334	사설방아타령 (2)	389
물동이타령	335	방개타령	390
모내기타령	336	방개홍타령	391
목공타령	337	범벅타령 (1)	392
몽금포타령 (1)	338	범벅타령 (2)	395
몽금포타령 (2)	339	부뚜막타령	398
몽금포타령 (3)	340	봉수타령	399
미나리타령	340	봉죽타령 (1)	399
매화타령 (1)	341	봉죽타령 (2)	400
매화타령 (2)	342	봉죽타령 (3)	401
매화타령 (3)	344	비단타령	402
매화타령 (4)	344	비타령	404
박타령	345	배꽃타령 (1)	405
방아타령 (1)	345	배꽃타령 (2)	406
방아타령 (2)	346	백만사타령 (1)	407
방아타령 (3)	349	백만사타령 (2)	409
방아타령 (4)	350	베틀타령	410
방아타령 (5)	351	뽕타령 (1)	412
방아타령 (6)	352	뽕타령 (2)	412
방아타령 (7)	353	뽕타령 (3)	413



황해도산타령	414	장사타령	487
산타령 (1)	415	장산곶타령	488
산타령 (2)	416	주머니타령	489
놀랑 (1)	417	징검이타령	489
놀랑 (2)	421	중타령	491
앞산타령	426	제주도타령	492
뒤산타령	428	창부타령 (1)	493
경발림	432	창부타령 (2)	495
삼동주타령	435	창부타령 (3)	498
삼산반락	436	타령 (1)	500
섬마타령	437	타령 (2)	502
신고산타령	438	타령 (3)	502
신세타령	440	타령 (4)	503
새타령 (1)	442	타령 (5)	504
새타령 (2)	445	타령 (6)	505
새타령 (3)	446	풀무타령 (1)	506
새타령 (4)	447	풀무타령 (2)	507
새타령 (5)	451	풍구타령 (1)	508
새타령 (6)	459	풍구타령 (2)	509
새타령 (7)	459	풍구타령 (3)	510
새타령 (8)	462	풍구타령 (4)	510
황새타령	468	풍구타령 (5)	511
쇠스랑타령	469	풍구타령 (6)	512
이야흥타령	470	풍구타령 (7)	513
야흥타령	470	한강수타령 (1)	514
아이공타령	471	한강수타령 (2)	515
안하방루타령	473	한천타령	516
어랑타령 (1)	474	호미타령 (1)	517
어랑타령 (2)	475	호미타령 (2)	518
어랑타령 (3)	476	호미타령 (3)	519
오동추야	478	호미타령 (4)	519
오동나무타령	479	호미타령 (5)	520
오봉산타령 (1)	480	호미타령 (6)	521
오봉산타령 (2)	481	갓은 호미타령	522
오호타령	482	흥타령 (1)	524
은실타령 (1)	483	흥타령 (2)	524
은실타령 (2)	484	흥타령 (3)	525
잠배타령	484	흥타령 (4)	526
장기타령	485	흥타령 (5)	527
장이야 군이야	486	가난한 량반	528
장단타령	487	굿거리	530